

바이오 특화단지 지정 공모 앞둔 전북자치도

“1% 가능성만 있어도 도전한다”

전국 최대 비임상 실험용 영장류 보유 등 연구 인프라 ‘최고’

존스홉킨스·하버드대 등 연구진과의 인적네트워크도 갖춰

“1%의 가능성만 있어도 우리는 도전한다.” 바이오 특화단지 지정 공모 발표 심사를 앞둔 전북특별자치도의 내부 분위기가 그렇다.

바이오 특화단지 지정 공모 심사가 다음 주로 다가온 가운데 전북도는 모든 인적 자원을 동원해 총력 대응에 나섰다. 도와 전북테크노파크, 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등이 팔을 걷어붙이고 막바지 심사 준비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

도는 내부적으로 스와트(SWOT) 분석(비즈니스나 특정 프로젝트의 강점, 단점, 기회, 위협을 식별하기 위해 사용하는 기법)을 통해 경쟁지역과의 비교 분석을 진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전북의 강점을 도출, 최대한 부각하는 방향으로 공모를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가 내세우는 전북 바이오산업의 강점은 압도적인 연구 인프라다. 전북은 바이오산업에 관한 전(全)주기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다. 바이오산업의 핵심은 소재인데 전북은 약 146만 종에 달하는 국내 최대의 생물자원소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 상태다. 여기에 실험용 영장류 2,700마리, 미니피그 100마리 등 중개연구가 가능한 비임상 인프라도 갖췄다.

KIST와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식품연구원, 농촌진흥청 등 연구인력도 풍부하다. 여기에 삼급병원인 원광대병원, 전북대병원을 포함해 종합병원 14곳이 소재하는 등 전국 최고 수준의 의료 인프라를 갖춘 것도 장점이다.

해외를 망라하는 다양한 네트워크도 강점이다. 전북대 출신으로 미국 하버드대 의대 교수로 활약 중인 최학수 교수, 의생명공학연구자이론 존스홉킨스대 김덕호 교수 등이 도와 손잡고 인력양성과 교류 등 전북 바이오 특화단지의 청사진을 함께 그리

고 있다. MIT와 KIST 유럽연구소, 브라우호퍼 등 세계적인 바이오산업 연구기관과 협력도 추진 중이다.

다만 도내 소재 바이오 기업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점은 과제로 꼽힌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도는 (썬)스프링바이오, 오가노이드사이언스, 강스텔바이오 등 바이오산업 선도 기업 유치에 총력을 기울였다.

또한 앞으로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 개정을 통해 바이오 분야 규제 해결 특례를 도입하고 레드바이오전용랜드, 투자보조금 지원 등 지원책을 마련해 기업 유치와 창업을 장려하겠다는 복안도 세웠다.

2023년 7월, 도는 총복 오송과 경복 포함 등 잠재한 지역들과의 경쟁을 통해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에 성공하는 쾌거를 거뒀다. 선두에는 김관영 도지사가 있었다. 김관영 도지사는 선도기업 유치와 공모보조사 PT, 부처 실득 등 전방위로 활동하

며 이차전지 특화지역을 이끌었다.

이번에도 김관영 매직이 통할 수 있을까? 도는 지정 여부에 대해서 다소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인천과 충북 등 바이오산업 선도 지역의 경쟁력이 강하고 다른 지역들과의 경쟁도 만만치 않다는 전망이다.

그러나 도는 이번 공모사업 대응으로 지역의 강점인 그린바이오 산업이 업그레이드되고 신산업인 레드바이오가 글로벌 경쟁력을 갖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도민의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그간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던 산업과 기업 인프라를 하나로 묶어내면서 도내 바이오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키울 자양분을 내부에서 구축할 수 있게 됐다는 평가다.

도에 따르면 바이오 특화단지 지정 최종 발표는 올해 7월경으로 예상된다.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에 이어 1년 만에 다시 바이오 특화단지 지정이라는 경사를 이룰 수 있을지 전북특별자치도의 행보에 귀추가 주목된다. /김재훈 기자

전북자치도, 제1회 추경예산 편성

5138억원 규모... 민생에 방점

전북특별자치도가 5,138억원 규모의 제1회 추경예산을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했다.

이번 추경예산은 고물가 및 고금리, 원자재값 상승으로 인한 지역경제의 어려움이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지역 기업과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덜고, 취약계층 보호에 최우선 방점을 두고 편성했다.

경제회복 둔화, 정부 감세정책으로 세수가 감소하는 등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지역 내 다양한 계층의 현장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지방채를 발행하는 등 과감하게 재정을 운영하는 방침을 세웠다.

이번 추경이 확정되면 전북특별자치도 예산은 기정예산 9조9,908억원 대비 5,138억원(5.1%)이 증가한 10조 5,046억원이 된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3,419억원(4.2% ↑), 특별회계 408억원(3.9% ↑), 기금 1,311억원(14.8% ↑)이 각각 증가했다. 이번 추경은 도민경제 부흥, 농생명·산업수도, 문화·체육·관광 산업 거점 조성, SOC 균형발전, 도민행복·희망교육 등 크게 5개 분야에 중점을 두어 예산을 편성했다.

먼저,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감안해 도정 최우선 과제인 전북 도민경제 부흥에 906억원을 지원한다.

소비 활성화를 통한 소상공인 매출 향상을 위해 301억원을 투입해 지역사랑상품권을 추가 발행하고, 착한가격 업소 활성화를 위해 배달료 지원, 지역사랑상품권 추가 할인(5%), 공공요금 등을 지원한다.

또한, 경기침체 장기화로 인한 폐업 사업자의 재기를 돕기 위해 개인보증

전환 및 보증료를 감면을 지원하고, 이차보전을 통해 금융부담을 경감하여 생활 안정을 지원한다.

지역 내 창업 초기 기업과 성장 가능성이 높고 혁신역량이 있는 기업의 유니콘 기업화, 전북의 미래 먹거리 산업인 이차전지 및 레드바이오산업을 직접 육성하기 위해 1,380억원 규모로 5개 편도를 조성·지원한다.

신성장 동력 산업이 될 첨단바이오와 전북경제를 지탱하는 주력산업인 조선, 농기계 분야의 경쟁력을 높인다. 전북특별자치도의 미래 먹거리가 될 농생명산업 수도 조성에 595억원을, 문화·체육·관광 산업거점 조성으로 문화산업화 기반을 다지기 위해 181억원을 지원한다.

또한, 도민 건강과 안전, SOC 등 도민 복지 및 편의 증진을 위해 269억원을 지원하며, 교육·소통·협력을 통해 지방소멸과 지방대학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도민행복 희망교육에 968억원을 지원한다.

최병관 전북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는 “장기간 계속되는 고물가, 고금리, 원자재값 상승으로 지역기업과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민생살리기 활로를 찾는 방법을 고심해 왔다”며, 추경예산안 제출에 대한 소회를 밝혔다.

아울러, “국정운영 의정을 비롯한 도의회에서 어떻게 마련할 추경예산안이 원활하게 통과되어 신속하게 민생에 전달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추경예산안은 25일 도의회에 제출됐으며, 5월 3일 열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400회 임시회에서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시작으로 각 상임위원회 심사가 진행된다. /김재훈 기자

전북교육청, 추경 4조7289억 편성

5% 증액... 디지털 교육혁신·늘봄학교 전면 시행 등에 중점

전북자치도의회에 제출... 심의·의결 거쳐 내달 17일 확정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이 정부의 세수 부족으로 인한 예산 감소에 따른 ‘선택과 집중’을 통한 알찬 추경 예산(안)을 발표했다.

특히 서거석 교육감의 중점 사업인 ‘디지털 교육 혁신’과 ‘늘봄학교 운영’ 등에 집중 편성된 것이다.

이상근 예산과장은 25일 브리핑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본예산 대비 2,267억 원 늘어난 4조7,289억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 이날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세입예산은 보통교부금 등 중앙정부 이접수입 1,338억원, 지방자치단체 및 기타 이접수입 354억원, 재산매각과 반납금 수입 등 자체수입 122억원, 전년도 이월금 452억원이다.

“분산에너지법 시행, RE100 등의 에너지분야 현안들이 있어 ESS 평가센터는 필수 불가결한 시설이다”며, “특별한 변화와 새로운 도전을 하고 있는 전북특별자치도가 에너지산업에서도 글로벌 핵심기지가 될 수 있도록 재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개소식에는 김중훈 전북자치도 경제부지사는 “분산에너지법 시행, RE100 등의 에너지분야 현안들이 있어 ESS 평가센터는 필수 불가결한 시설이다”며, “특별한 변화와 새로운 도전을 하고 있는 전북특별자치도가 에너지산업에서도 글로벌 핵심기지가 될 수 있도록 재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개소식에는 김중훈 전북자치도 경제부지사, 박지현 한국전기안전공사장, 황은길 산업부 에너지안전과장, 유희태 원주군수, 안호영 국회 의원, 조배숙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인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식수, 센터 투어, 케이크 커팅식을 가졌다. /김재훈 기자

경 조성(540개 교실)에 71억원, 초등학교 1학년 대상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에 57억원, 늘봄실무사(300명)와 기간제 교사(20명) 배치에 60억원, 늘봄학교 사업추진센터 운영에 3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교사의 교육활동 보장에 38억원을 투입한다. 학교폭력, 교권 침해 등에 따른 학생 분리지도 지원 수당 20억원, 학교 업무 경감 지원을 위한 학교업무통합지원센터 구축 15억원,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운영 2억원, 교원 교육활동 보호 변호사(2명) 채용 1억 원 등이다.

이와 함께 학생 안전관리를 위해 51억 원을 편성했다. 통학로 교통안전환경 개선(62개교)에 18억원,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운영에 13억원, 학생수련원 안전체험관 증축에 9억원, 학교폭력 예방지원센터 운영에 4억원, 학교폭력 예방 지도에 4억원, 학교폭력전담번호(4명) 채용에 3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교육환경 개선 사업에도 762억원을 편성했다. 학교 시설 환경 개선 489억원, 식생활관 리모델링 및 조리실 환기설비 개선 138억원, 특별실 현대화 등 학교 여건 개선 88억원, 학교체육시설 개선 47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끝으로 공공요금 인상(5.2%)과 학생 수 변동을 반영해 학교기본운영비 88억 원을 추가 지원하는 등 학교 현장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했다.

한편 이번 추경 예산(안)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오는 5월 17일 확정된다.

서거석 교육감은 “이번 추경예산 편성은 디지털 대전환에 대비하고, 지역과 학교의 특성을 반영한 전북형 늘봄학교 운영에 중점을 뒀다”며 “향후 원만한 예산 심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전북자치도의회와 적극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정은숙 기자



거버넌스 지방정치

대상 우수상 수상

환경봉 군산시의원

정치문화 혁신 분야

환경봉 군산시의원(더불어민주당, 나은1·2동)이 지난 24일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열린 2024 거버넌스 지방정치대상에서 부패관행 근절과 청렴도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등 뛰어난 지방정치활동으로 지방의원 부문 행정·정치문화 혁신 분야 우수상을 수상했다.

환경봉 의원은 제9대 의원으로 재직하면서 제4·7대 군산시의회의원을 역임한 다선의원으로서의 경험과 전문성을 토대로 지역의 미래를 선도하고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조례제정, 자유발전, 시정질문,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하며 대안 및 개선방안을 제시해 왔다.

특히 5분 자유발언 ‘어쩌다 이런 일이 시리드로 잘못된 행정에 대해 적극적인 문제 제기 및 대안을 제시했고, 군산시의회 인사 청문회 조례 제정으로 막대한 시민의 혈세가 투자되는 출자·출연 기관장의 감증을 철저히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으며, 군산시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은 전국 최초로 공개범위를 5급 이상으로 명문화하여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는 등 행정·정치문화 혁신을 위해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자로 선정됐다. /군산=이재훈 기자



‘살고, 일하고, 쉬고 싶은 농촌 조성’... 농촌협약 체결식

25일 정부 세종컨벤션센터에서 농림축산식품부와 남원시 등 22개 자치단체간의 농촌협약식이 열린 가운데,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과 최경식 남원시장 등 지자체장들이 한자리에 모여 손을 맞잡고 있다.

세계 최대 규모 ESS 실증시설, 힘찬 발걸음

완주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ESS 안전성평가센터 개소식

세계 최대 규모의 ESS 실증시설인 ‘ESS 안전성 평가센터’가 완주테크노밸리 제2일반산업단지에서 힘찬 발걸음을 내딛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산업통상자원부, 안주군, 한국전기안전공사와 합심해 지난 2022년부터 총사업비 471억원을 들여 구축한 ESS 안전성평가센터(이하 평가센터) 개소식을 25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평가센터는 에너지저장장치(ESS 8MWh)와 연계된 신재생 발전설비의 안전성 평가·실증체계(연료전지 0.4MW, 태양광 1MW)를 구축하고 안전기준 개발을 추진한다.

지난해에 1단계로 센터동과 실증 설비를 갖추었고, 올해 2단계 실증설비가 완공하면 내년부터 디지털트윈 기반 ESS 원격안전진단기술과 안전기준



을 개발할 예정이다.

ESS 안전성 평가센터는 제품 단위로 안전성을 검증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ESS와 전력변환장치(PCS), 보호장치 등을 한꺼번에 포괄하는 시스템 단위의 복합적인 안전 검증을 추진한다.

특히 최근 국가공모 사업으로 선정

된 ‘무정전전원장치(UPS) 안전성 평가 및 안전기술 개발’ 사업은 ESS 안전성 평가센터 실증설비를 활용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중훈 전북자치도 경제부지사는 “분산에너지법 시행, RE100 등의 에너지분야 현안들이 있어 ESS 평가센터는 필수 불가결한 시설이다”며, “특별한 변화와 새로운 도전을 하고 있는 전북특별자치도가 에너지산업에서도 글로벌 핵심기지가 될 수 있도록 재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개소식에는 김중훈 전북자치도 경제부지사, 박지현 한국전기안전공사장, 황은길 산업부 에너지안전과장, 유희태 원주군수, 안호영 국회 의원, 조배숙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인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식수, 센터 투어, 케이크 커팅식을 가졌다. /김재훈 기자

남원시의회 경제산업위원회,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 점검

남원시의회 경제산업위원회(위원장 김영태)는 2025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나섰다.

위원들은 대내외적으로 악화되는 경제환경 속에서 시민의 삶을 터주고 남원시의 신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안 마련을 당부했다.

김영태 위원장은 상습 침수지역은 가구 수가 적다 하더라도 세심히 살펴 해결 방안을 마련하고 수해 대비책 홍보를 당부했으며, 김한수 부위원장은

조형물의 설치에 사후관리가 중요하고 추후 효과가 없으면 철거를 해야하니 설치를 숙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태수 의원은 배수 개선사업이 성공적으로 완료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달라고 요청하고, 윤지훈 의원은 레저산업진흥센터 부지로 남원역 인근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다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염봉식 의원은 노년층도 쉽게 물품 재활용에 동참할 수 있도록 분리수거

함 시민성 개선을 제안했으며, 이기열 의원은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지원뿐만 아니라 남성 농업인들도 특수건강검진 지원 검토를 요청했다.

한명숙 의원은 농촌돌봄마을 조성사업 공모 선정을 위해 구체적인 필요성과 추진계획 마련을 제안하고, 이숙자 의원은 청년도전지원사업의 지원 규모와 운영인력의 채용현황을 점검하고 철저한 홍보를 당부하고, 광역 생활 폐기물 설치 사업 관련, 순창군 폐기물이 반입되는 사항을 시민들과 충분히 소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원=김기두 기자